

생명의 말씀

#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수 3:7-10)



김종열 목사

· 서울강남지방회 중경회장  
· 참사랑교회 원로목사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흉년이 들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므로 창 15:13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창 15:13)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 200여 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건너에 보이는 모압에서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가 30리 거리에 있는 시담에 정막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 1)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십니다.(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수 3:7)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은 이스라엘도 알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듣고 있

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하자는 의도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림의 떡 같은 곳입니다.

정말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게 하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권위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기렸고 가나안 족속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 강성한 일곱 족속들도 능히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우 주십니다.(수 3:8-9)

“너는 언약제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수 3:8-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물이 범람하여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향을 보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는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 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목전에서 물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권위를 주기 위함이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 3)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기집니다.(수 3: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키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수 3:10)

언약제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밟을 때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히 원주민 일곱 족속도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무리를 따라 가다가 물이 예 끓어졌는지 모르고 강을 건

너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계를 멘 제사장들이 강물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법계를 멘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물로 올라오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므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므로 생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부흥에 갈급하여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부흥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며 모든 교회가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부흥을 목표로 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중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가득하고 나는 없는 것과 나는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어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있는 경단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없어 머뭇거리고 떠나갔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선 달기로는 ‘꽃감이 달다’고 현 정권에 아무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한 방송은 아닌가?

오죽하면 KBS 경영노조에서 성명하기를,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를 이렇게 자주 공격하는 것인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사실을 아디지도 왜곡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제 KBS를 언론사로 보지도 않는다. 정권의 선전매체로 보고 있고, 아예 KBS를 보지도 믿지도 않는다고 개탄하였는가?

KBS는 한두 해 있다가, 혹은 이 정권과 함께 사라질 방송이 아니다. 이제라도 수백만 혹은 천만 명 이상 되는, 하늘을 찌르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사회와 국가를 근본적으로 불의와 부조리로 만들어 가는 세력이 어디인가? 이제 는 그동안 시청자들부터 인식되어져 온 ‘KBS답다’는 부정적 꼬리표를 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 보인다.

## 동정

### 기독교방송교회 회장에 박영민



한국기독교방송교회회는 지난 1월 18일(토)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세종산성교회(담임 지성업 목사)에서 '2020 신년예배 및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영민(강원형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씨를 선출했다. 신임 박영민 회장은 교계에서 정부세종청사연립산교회 통일선교부장 및 기도부장, 한국기독교방송교회 총무등을 지냈다.

### 한직선 '직장선교 대상'에 홍종광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2020년 신년하례예배, 이사장·대표회장 이·취임 및 직장선교 대상 시상식이 지난 1월 11일(토)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에서 열렸다. 직장선교 대상은 현대자동차직장선교회(회장 김계태) 홍종광 회장이 받았다.

### 부기총 신임 총회장 김승민 목사



지난 1월 12일(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제50대 총회장 이·취임 및 감사예배'에서 김승민 부천 원미동교회 목사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신임 총회장에 취임했다. 김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문성 축구해설 '호프컵' 알린다



국제구호단체 희망지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을 제3회 기아대책 HOPE CUP을 알리기 위한 '희망지구'로 위촉했다고 지난 1월 13일(월) 밝혔다. 기아대책 HOPE CUP은 201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세계 기아대책 결원 후원 아동을 한 국가에 초청해 축구대회를 비롯한 문화체험을 하는 나눔 프로젝트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시사기획 창, 역시 KBS답다

KBS 1TV가 지난 1월 11일(토) 밤 8시에 약 1시간가량(시사기획 창)을 통하여 '교회 정치 광장에 간하다'라는 제목으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하는 것을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5년 가까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KBS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쳐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고품격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매우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1월 11일에 방송한 내용은 사회 불의와 부조리를 캐는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고,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켰다. 그뿐만인가? 고품격 방송은커녕, 현장의 실상을 생생히 전하는 일개 개인 유튜브 방송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방송이 담고자 하는 내용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광화문 애국 집회를, 기독교의 역사적이고 대한민국 정권 탄생 과정에서의 태생적인 관련성을 삼키시키고, 또 기독교에 의한 정치 집회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의도는 매우 약화시키려는 듯하다.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전광

훈 목사가 인도하는 애국집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하고 비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시사기획)를 통하여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달도 안 되어 또다시 비난하는 방송을 한 것이다. 권력과 정권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KBS는 매우 다급했던 모양이다.

전광훈 목사가 성직자이면서 이런 집회를 계속 끌여가는 것은 크게 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집회는 현 정권의 실정과 국민을 진영 논리로 갈라놓은 데서 생긴 현상이며, 화합과 포용을 실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행의 산물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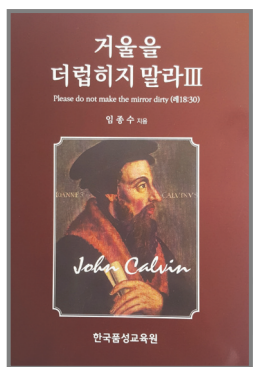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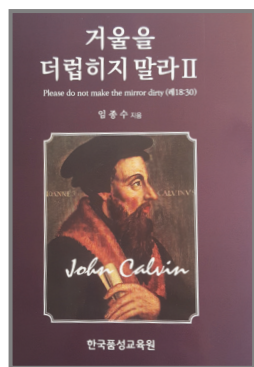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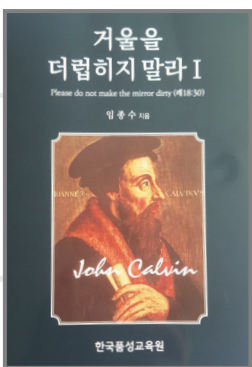
전광훈 목사가 인터뷰에서 한 말대로,

현 정권과 대통령이 '주사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행동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였다.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집과 이념적 편향과 민생의 문제와 직결된 경제 문제를 정부가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이런 집회에 사람들을 오라고 하여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인 KBS는 광화문 집회에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풀이 데서 찾아야 할까?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보수를 악으로 보고, 진보를 선으로 생각하는 이념적 편향 현상에서 벗어나, 현 정권의 실정(失政)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 보인다.

#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